

石油現物市場動向과 展望

지난 10년에 걸쳐 석유회사들은 외부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아 왔으며, 현재에 이르러 그들은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들이 산유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석유자원이 산유국에 의해 국유화되자 그들은 일관조업회사로서의 생존능력을 상실, 살아남기 위하여 지금까지 경시해온 스파트시장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되었다. 지난 해에는 석유산업의 구조변화가 더욱 촉진되어 최악의 상태로까지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석유산업은 옛날과 같이 이익주구 정책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하에서는 Petroleum Economist 최근호에 실린 특집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編輯者註>

I. 머리말

지난해는 석유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각하게 빚어져 석유시장이 붕괴 위기까지 치달은 해로 기억이 새롭다. 지금부터 50년전, 당시 美연방정부는 석유생산업자들에게 생산량을 할당해 주고 있었는데, 텍사스 동부 생산업자들이 할당량을 무시한 과잉생산으로 석유시장은 공급과잉으로 석유홍수사태를 유발시켰던 것이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당시도 신규기업들이 유전개발에 참가, 생산량은 대폭 증대돼 기존 일관조업 대석유사들이 책정·관리한 석유가격 구조를 위협했다. 당시 즉 1934년 美國은 세계의 석유생산을 조절하는 오늘날의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으며, 연방정부와 석유산업이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 유가안정을 지속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1984년까지 OPEC는 油價가 균형가격 수준 이상에서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통제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만 했다.

석유시장의 제반상황이 50년전과 비슷하게 전개된 1984년에 이르러 OPEC에게는 새로운 도전장이

날아 들었다. 비록 석유산업이 수송 및 정부부문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긴 하지만, 석유 매장량의 대부분을 산유국들에 의해 박탈당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석유산업에 공헌해온 일관조업 석유사들은 석유정세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 일관조업 회사로서의 지위를 포기해야만 했다. 오늘날 원유와 석유제품은 한정된 회로만 흐르는 제품이라기보다는 일반상품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사들은 점점 무역지향으로 탈바꿈 하고 있어, 세계석유 거래의 40~50%가 현재 현물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성행하던 장기 공급계약 형태는 스파트 거래에 의해서 구축되고 있다. 1934년 아마 그 이전부터 논의된 석유선물시장이 70년대 중반 불행한 시련을 겪은 후 작금에는 점차로 발전해 현재에는 석유의 매매가 명실공히 이루어지는 종합 선물시장으로서 확립되고 있다.

II. 原油의 공급과잉

석유의 거래형태가 단기 스파트 형으로 바뀌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 주요 원인으로는 원유공급

이 과잉사태를 빚고 있기 때문이며, 또 이 공급과잉 상태가 1990년대까지는 못가더라도 적어도 80년대 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지난해 OPEC가 기준유가를 5달러나 인하시킨 것은 공급과잉 상태가 심각했다는 것을 가장 설득력 있게 말해주고 있으며, 이때에도 스파트시장에서 형성되는 낮은 원유가격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였다. 당시 OPEC는 1979-81년 油價급등으로 수요가 대폭 떨어졌고, 세계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수요가 떨어졌다는 것을 실감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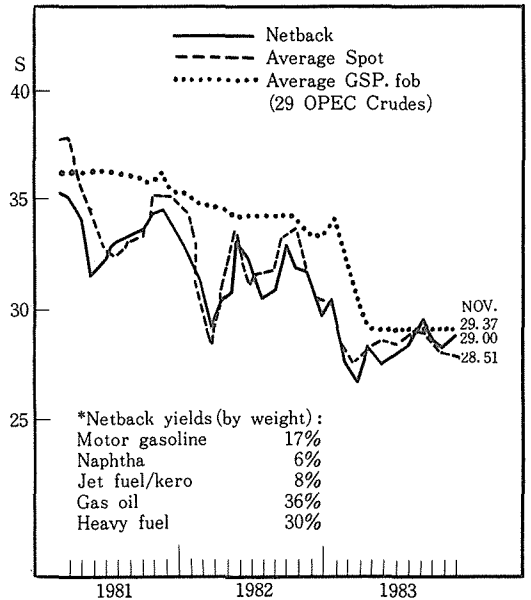
OPEC가 油價안정화의 한 수단으로서 산유량 할당방법을 동원한 것은 지금까지 두번 있었는데, 첫번째 즉 1982년의 시도에는 산유국간의 할당량이 비현실적인데다 油價가 배럴당 34달러를 지속하고 있어 가격면에서 인센티브가 없어 결국 실패했다. 따라서 非 OPEC산유국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을 회복할 수가 없게 되었다. 1978년부터 北海, 멕시코, 알래스카 및 기타 군소 산유국으로부터 생산량이 증가되어 시장을 충만시켰다. "이때 이란 혁명이 돌발하여 油價는 소비자들이 지불하기를 연달아 거절하는 수준까지 폭등, OPEC에게 불안을 던져 주었으며, 현물 가격은 배럴당 40달러 이상까지 상승되었다. 이 결과 석유소비자들은 소비절약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어 OPEC 석유소비율을 줄이는 대신 非OPEC산유국들의 저가석유를 選好, OPEC의 시장점유율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지난 해에는 82년의 경우와는 달리, 생산량 할당의 필요성을 더욱 긴박하게 느꼈던 것 같다. 油價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배럴당 15달러 수준까지 폭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빗발치듯 나돌자, 산유국들에게 거액의 차관을 해준 은행들은 물론 OPEC, 非OPEC등 모든 산유국들은 당황하여 油價의 인하로 油價구조의 붕괴를 막아보자는 의도에서 5달러 기준유가의 인하를 단행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멕시코가 가격구조와 산유량에 대해서는 OPEC에 협조했다는 것이며, 아프리카 산유국들과 동질의 경질유를 생산하고 있는 英國도 가격안정 방향에 대해 OPEC에 동의하여 自國의 산유량을 금년말까지 하루 210만배럴 수준을 지속시키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의도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

는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1979-1981년의 가격혼란을 겪은 후, 생산량을 할당하는 동시에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취함에 따라 장기의 가격안정의 시대로 돌입했다. 油價인하전인 1982년 원유가격을 정가보다 배럴당 6달러나 할인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성행했으나, 최근 몇개월동안 현물시장에 있어서의 원유가는 공시가격선에서 상하 1.5달러 폭을 벗어나는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석유제품 가격도 역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여와, 지난해 3/4분기에는 제품판매 복합단가(Netback)가 적자폭을 넘어서는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다(〈그림 -1〉 참조).

〈그림 - 1〉 Netbacks/ Crude Oil Prices
US Dollars per barrel (fob)



Source: Commodities Research Unit. Input: Petroleum Argus spot cargo prices; CRU Energy Database.

그러나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간 안정되었다고는 하나, 원유의 공시가격과 현물시장가격의 갭은 또 다시 벌어져 가고 있어 시장의 침체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해 여름에 몇몇 예방적인 재고 비축 수단을 취하지 안했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을 것이다. 재고비축 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확대될 우려, 美國을 비롯한 개발국들이 경제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이기에 대해 대비하자는 것이다.

Ⅲ. 石油需要 推移

주요소비 시장에서 상류부문에 대한 수요는 수개월동안 침체를 겪은 후 바닥세로 부터 회복되고 있지만, 경제 회복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에 서의 예상 수요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요원하다. 최대 시장인 美國에서 지난 해 3/4분기 실질 GNP 성장률은 7.7%을 보인 반면, 석유수요 증가율은 겨우 1.3%에 머물렀는데, 이의 주된 원인은 지난 해 전반기 미국의 석유재고 하루 평균방출량은 45만배럴 이었는데 반해, 이런 현상이 반전되어 후반기에는 원유 및 제품(SCR 제외)의 재고비축이 하루 38만 5천배럴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전세계적인 것이었다.

스파트 원유가격이 연말 경에는 잠깐동안 안정세를 보였지만, 주요석유 제품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원유구매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 정제업자들이 초과재고를 금년 1/4분기에 처분하기로 할 경우, 제품가의 하락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경제회복이 석유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 양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석유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났던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에너지 증가율과 GNP성장률은 일반적으로 비례적인 관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장기석유 수요 예측은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현재에도 이러한 전제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경제성장과 석유수요와의 관계가 변화되었는가는 예측을 담당하는 정통한 전문가들이 해야 할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작년 Texaco의 수석경제학자인 Tor Melloe 박사는 에너지절약의 장기적인 효과를 정량화한 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에 따르면 1973-74 가격폭동의 영향이 채 가시기도 전에 1979-80년의 2차 석유파동으로 강도를 더해 그의 충격은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그는 1990년의 OPEC産 석유수요가 겨우 2,290만배럴 밖에 안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원유의 공급과잉 상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장기적인 것이라는 대다수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량의 수요증가는 헐사리 시장에서 수용되었지만, 그로 인한 가격의 안정을 가져올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원유 및 석유제품의 구매가능력은 사실상 용이한 편이므로

사우디 아라비아가 85년까지 지속시키겠다고 천명한 기준유 배럴당 29달러는 또 다시 강력한 인하압력을 받고 있으며, 대폭적인 유가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非OPEC산유국들이 종전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석유생산을 계속하고 있고, OPEC 산유국들은 그들이 책정한 산유량 실링 1,750만배럴을 고수하기는 커녕 생산량을 증대시켜 현재 하루 1,900만배럴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OPEC산유국간 할당량 제도는 붕괴위기에 놓여 있다. 중산국은 주로 이란, 나이지리아 심지어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몇몇 회원국이다. 지난 해 3월 런던회의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장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량을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양해 되었으나, 사우디는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쿼타 적용을 거부하고 관념적 할당량 500만배럴을 초과 580만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非OPEC산유국들 중에서도 英國같은 나라는 한참동안, 지난 해 초의 생산수준을 의도적으로 잘 준수하는 것 처럼 보여 보수한다는 명목으로 6월과 7월에는 Brent 유전등을 조업중단 하는등 OPEC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 유전이 재가동되고 기타 몇몇 새로운 유전이 처녀생산을 개시함으로써 산유량을 하루 240만배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되자 OPEC는 약속위반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으나, 英國정부는 산유량에 대해 어떠한 약속 또는 양해를 한 바가 없다고 대응했던 것이다.

Ⅳ. 重質原油의 低價

한편 OPEC에 대해 자국의 산유량을 하루 2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그의 Isthmus 원유가격을 OPEC 기준유에 맞춰 29달러로 판매하겠다고 약속한 멕시코의 중질유 Maya의 낮은 원유가격은 크래킹시설을 보유한 美國 정유업자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동 원유의 가격은 2차례에 걸쳐 2달러 인상하여 현재 배럴당 25달러선에 머물러 있으나, 사우디 경질유를 비롯한 다른 원유에 비하면 마진폭이 좋은 편이다. 이에 따라 원유의 성상에 따라 기계에 발생하는 부식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야원유를 비롯한 기타 중질유를 최대한 사

용하고 사우디 경질유와 같은 원유를 줄이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멕시코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역시 판매량에 영향받지 않고, 자국산 중질유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급속도로 현대화되고 있는 정유산업에 대하여 중질유의 효용가치가 증대되고 있는데 이는 조만간 OPEC가 직면해야 할 한 문제이다. 종전에는 경질유가 선호되고 중질유는 거의 무시되는 경향이 높았으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기준유가가 배럴당 29달러의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중질유의 선호도가 증가한 것은 가격면에서 중질유가 훨씬 낮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유가 29달러는 실제적으로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수준이 약 20달러/B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기준유가의 저수준은 상당한 초과 생산이 있는 한, 다시 말해 장기간, 수요에 일치하는 생산량을 지속시킬 수 있는 인공적인 수단이 발견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독단적으로 원유가격을 정하는 장기계약의 효과는 <그림-1>에 표시되어 있다. 지난해 여름의 잠깐동안의 강세를 제외하고는 스파트 원유가격과 제품 Netback는 계속 공시판매가격 수준을 밑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석유제품가격은 일차 정제능력을 초과, 심지어 크래킹에 있어서까지 초과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OPEC 기준유에 연동된 원유를 사용할 경우 플러스마진을 남길 수 없는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많은 정유공장이 가동중지 사태가 속출되고 있음에도 가동수준은 능력의 60-75%에 머물고 있다. 1990년까지 현 정제능력 범위내에서 수요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실수요자들은 순수한 경제적인 요인만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석유부족 사태는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에서 초과능력 발생사태는 석유산업이 구조적인 변천을 겪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많은 변수들을 가능한 많이 이용하기 위해 전후방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석유회사들이 세계의 석유자원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을 당시 통합화 전략은 석유산업에 많은 기여를 했다. 당시 이익은 대부분 유정(상류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제품가격은 경쟁시장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었다. 기업의 주된 목적은 원유로부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류부문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이리하여 상류부문에서 확보한 수익을 필요량의 원유를 확보키 위해 하류부문에서의 적자폭을 메우는데 지원해 주는 예들은 당시의 상류부문에서의 기업의 관심도를 말해준다.

1970년대 산유국들이 석유자원의 국유화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대석유회사들의 계열사들은 물론 본사까지 필요 원유를 확보키 위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동시에 유정 즉 상류부문에서 대부분의 이익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생존을 위해 하류부문에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원유의 공식판매가격은 시장 여건과 동떨어져 있고 시장은 구조적으로 침체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석유산업은 일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산유국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책정된 장기공급계약 가격 즉 공식가격은 수요공급 원리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보다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높게 책정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자 석유사들은 원가를 줄이기 위해 현물시장으로 달려가게 되었다.

V. 石油市場의 무역지향

초과생산 능력이 발생하고 정유공장의 정제능력의 신속성이 확보됨에 따라 原油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것은 보다 더 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OPEC 공식가격보다 하위에 머물고 있는 제품가격하에서 플러스 Netback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균 원유 취득가액을 줄이려고 현물시장에 석유산업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급변하는 조업환경에 적응하고, 불경기는 가까운 장래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견지에서 석유산업은 무역분야를 지향해 구조개편을 착수했다. 모든 석유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커피·銅과 같은 일반상품들이 거래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의 원유를 사고 파는 스파트 분야에 뛰어들었다.

B. P는 새로이 무역지향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1982년 연차보고서에서 Peter Walters 회장은 주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자회사는

침체된 석유시장에서 살아남아 번영키 위해 만반의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목적은 원유의 구매, 제품의 판매등의 새로운 환경에 신속성 있게 대처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밝힌 사실은 팔목할 만하다. 석유사들의 원유의존도가 장기계약에서 단기 스파트시장으로 바뀔에 따라 정확한 숫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의존도는 약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가 이제 보편화된 상품이 된 이상 석유회사들은 보다 많은 시장기회 및 이익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무역능력을 길러야 한다. 어떤 OPEC산유국 회사들은 최근에 그들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해외에 무역사무소를 신설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예로 사우디 아라비아의 페트로민이 그의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할 목적으로 Norbec사를 신설한 예를 들 수 있으며, 최근에 日本에 사무소의 설치계획도 이런 목적에서 발생된 것이다.

하류부문에서 보다 좋은 마진을 확보키 위해 석유회사들의 스파트시장 의존도가 높아진 결과 스파트시장으로 유입되는 전체 원유량은 20-40%로 증가했다. 이 양은 장기공급계약이 주종을 이루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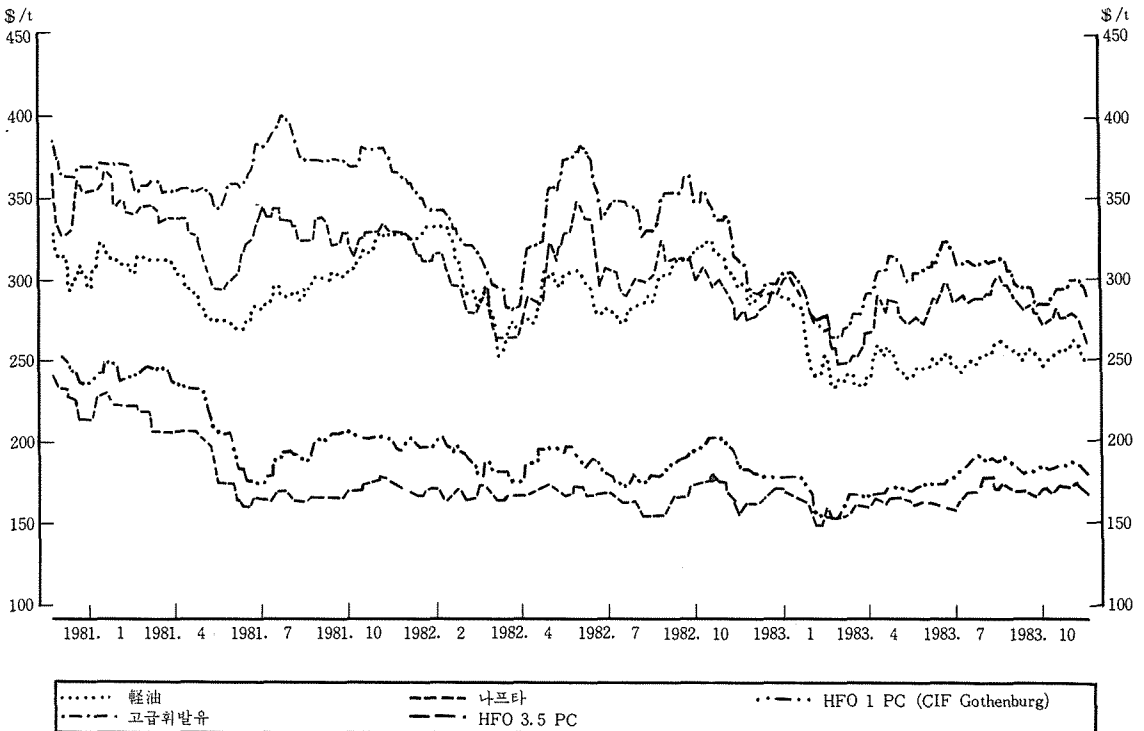
대의 0-5%에 비하면 상당한 신장이다. 최근에 새로이 크래킹 시설을 보유한 정유공장들의 급증에 따라 정유공장들은 다양한 유종의 원유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그리하여 필요한 제품수율에 따라 보다 많은 유종의 원유를 선택 구매하게 되었다.

정유공장 시설의 현대화의 대표적인 한 예로 미시시피강변의 Pascagoula의 하루 28만배럴 규모의 Chevron 정유공장을 들 수 있는데, 이 공장은 지난 몇년동안 크래킹시설 투자비로 13억달러를 투입했다. 1961년에 美國내 경질유만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이 공장은 이제는 저질 중질유를 분해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스파트 시장이야 말로 현대 정유회사들이 확실한 이익을 얻고 많은 시장기회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다.

VI. 精油産業의 現代化

원유가격이 장기계약이 성행하던 시대보다 대폭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정유산업이 직면한 두가지 난관을 해결하는 방법은 원유 및 제품을 사고 파는

(그림-2) Petroleum Argus Product Prices Mean CIF Prices-North West Europe



데 보다 신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유시설의 현대화 즉 크래킹 시설을 확립하는 것이다. 전자는 고도의 컴퓨터와 기술을 이용하여 원유 및 제품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입수, 정유업자들은 그들의 필요자료를 이용 신속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고, 후자는 정유공장의 현대화의 일환으로 크래킹시설을 신설해 그의 원료로 상압에서 생산되는 증질연료유를 사용해서 경질유 또는 중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 증질 연료유는 그것이 쓰여지는 만큼 원유를 대체할 수 있으며, 구매와 수출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주요 투입물이기 때문에 각광을 받게 되었다.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증질연료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것은 통계적으로 그 양은 기타 석유등으로 잡히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몇년 동안 증질연료유(Straight-run fuel)의 거래량은 현저하게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정유업자들에게 동제품이 점점 더 중요성을 던져주었기 때문이다. 이 크래킹 원료의 거래는 아주 별도로 행해 질만큼 수요가 안정되고 분화되었기 때문에 별도 제품으로 간주할 정도이다. 현물시장에서의 거래도 다른 것들보다 값이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 상례이며 원유가격과도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해 여름 현물시장에서 원유가격이 강세를 보였던 때, 원유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정유공장의 크래킹 원료용인 이 연료유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여 프리미엄이 톤당 22달러까지 뛰어올랐었다. 그러나 그후 스파트원유 가격이 떨어지자 이 연료유의 경제성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프리미엄은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좁혀졌고, 최상급의 경우도 프리미엄은 톤당 10달러를 넘지 않는 정도였다(그림-2 참조). 그렇지만 이것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VII. 先物市場기능의 확대

많은 정제업자들은 새로운 차원의 先物市場을 어느 때보다도 더 이용하고 있는 듯하다. 모든 선물계약이 반드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뉴욕 상품거래소(NYMEX)와 런던의 국제석유거래소(IPE)에서 거래량은 물량확보와 원가절감에

대한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업이 선호함으로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물론 선물시장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석유흐름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한 이후부터이며, 장기공급계약이 인기가 떨어지자 이 선물거래가 어느 정도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

1981년 4월 6일 개시한 IPE의 輕油 거래는 종전의 석유거래와 몇몇 석유회사들이 여기에 참여하여 꾸준한 성황을 이루고 있다. 동년 11월 21일 IPE에 Brent Blend 원유를 기준으로 한 원유선물거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한편 NYMEX에는 輕油를 포함한 대량의 원유선물거래가 이 거래소의 주된 상품으로 되어 주요 석유회사들이 여기에서 고시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자사의 석유가격을 책정하는 사태까지도 발생했다. 지난 해 3월 NYMEX가 WTI(West Texas Intermediate) 원유의 거래를 시작하자 그의 인기도는 급속도로 상승하여 하루 1,000배럴 이상의 거래계약이 최소한 1,000건 이상 거래되었으며, 최근에는 2,100건 이상의 매매계약이 이 거래소에서 성립되고 있다.

선물시장에서의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 선물시장의 가격이 수요공급 즉, 시장기능에 의해서 성립된다는 점에서 선물시장에 대한 신뢰성이 증가하였다. 런던과 뉴욕시장에서 경질연료유에 대한 선물 및 스파트 가격이 서로 접근하여 형성됨에 따라 WTI의 NYMEX 계약가격은 스파트시장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게 되자 기준원유인 WTI 원유의 수요가 늘어났다. 더우기 NYMEX와 IPE에서의 연료유 계약의 스펙이 서로 유사했기 때문에 양거래소 간의 재정거래 형태의 거래(Arbitrage-type trade)가 촉진되었는데, 이 거래는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활동과 유사한 거래이다.

NYMEX에서의 자동차용 보통휘발유 계약을 포함한 선물거래가 최근 대폭 증가되고 이에 대한 옹호론도 대단하여 현재 거래량의 약 70%의 리스크가 커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고해 보건대 NYMEX가 선물계약의 기준원유로 WTI를 선택한 것은, 그것이 세계전체 원유가격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주 잘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의 침체된 스파트 원유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Brent 원유의 현물가격은 WTI 원유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양원유의 가격은 아주 접근하여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Brent 원유와 질이 유사한 아프리카의 리비아, 알제리, 나이지리아 원유는 가격에 있어서 이와 등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컴퓨터의 폭넓은 보급으로 급변하는 무역환경이 요구하는 정보가 시시각각으로 입수됨에 따라, 처음으로 시장기능의 원리에 의한 실제가격이 형성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한때 석유시장은 Platts와 Petroleum Argus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움직였으며, 그들은 정보제공의 폭을 계속 확대시켜 그들의 정보는 아직도 매일매일의 거래에 주요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Oil Buyers Guide와 PIW가 합작한 Petroflash지를 포함한 많은 정보매체에 의해 경쟁의 위협을 받고 있다. 또 AP-Dow Jones와 Reuter와 같은 경제통신사가 석유가격을 포함한 많은 석유뉴스, 석유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치 및 경제사건, 외환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와같이 석유산업 및 무역은 스크린장치, 기억장치등 고도의 많은 뉴스매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자 통합화 전략을 사용하던 때에 가능했던 완만한 석유시장의 흐름에 익숙해 있던 전통적인 거래업자들을 당황하게 할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다. 다시 말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을 컴퓨터를 통해 즉시 입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석유산업은 격변하는 세계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석유의 시장구조가 변화된 것은 현재의 원유생산 및 제품정제의 초과능력이 가까운 장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화된 때에 다분히 연유하고 있다. 그와 같은 침체된 시

장 환경에서는, 구매자들이 점차적으로 스파트시장을 이용하여 원자재 조달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한, 장기 공급계약 형태의 거래는 필연적으로 위협을 받기 마련이다.

VIII. 경쟁의 격화

오늘날 정유산업의 시장은 한층 더 축소되었고 제품 소요물량이 1977-1979과 같은 높은 수준에도달하는 것은 요원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벌어질 전반적인 석유시장의 움직임에 내다보면, 원유와 제품이 시장에서 과잉 상태를 빚던때에 석유사들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시장점유율 및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쟁탈전을 벌렸던 때보다도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언젠가(1990년대 초 또는 그 이전), 석유시장에 공급이 팽박해지는 사태가 벌어져 장기 공급계약 형태가 또 다시 성행할 것이므로 석유산업은 이에 대비해 구조개편을 단행해야 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무역지향의 석유산업 체제는 그때까지, 비정치적인 문제로 세계석유 가격이 70년대와 같은 폭등의 여파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형태인 것 같다. 당시 석유구매자들은 석유시장에서 어떠한 선택권도 행사하지 못한 때였다. 따라서 현금의 정유산업이 나아갈 길은 장기계약 형태의 원유도입을 탈피하고 현물시장, 선물시장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두고 싶다. *

〈주간석유에너지정보〉

아껴쓰는 에너지
내집크고 나라크다.